

민 지 실	음 혜 천	BUDDHANARA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 기도 법회 및 교리탐구

넷째주 토요일 저녁 9시 부터 11시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11시 4월달 인등 기도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고
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있네.
악한 행 저지른 사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뒤 늦게 자기 잘못 알고
고통과 슬픔에 잠기네.

He suffers in this world, and he suffers in the next world: the man who does evil suffers in both worlds. He suffers, he mouns when he sees the wrong he has don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전 중정예하 동안거 해제 법어 “문간에 있는 찰간을 꺾어 버려라”

법전 조계종 중정예하는 오는 21 일 동안거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렸다. 법전 중정예하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의 ‘금란가사’에 대한 문답을 예로 들며 “이제 ‘세존의 금란가사’ 공안을 걸망에 지고 주유하면서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그 도리까지 함께 참구하고 참구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94 개 선원에서 모두 2222 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집계했다.

다음은 법전 중정예하의 동안거 해제 법어 전문.

가섭에게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사형에게 금란가사를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 특별히 따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러자 가섭이 말했습니다.

“아난이여!”

가섭이 부르는 소리에 아난은 대답했습니다

“예!”

이에 가섭은 다시 말했습니다.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

아난이 가섭에게 ‘세존이 금란가사 이외에 다시 어떤 무엇을 전한 것이 있는가?’라고 한 것이 문처(問處)이고 가섭이 ‘아난이여!’라고 부른 것은 답처(答處)입니다.

그리고 가섭이 ‘아난이여!’하고 불렀고 아난이 ‘예!’하고 대답한 그것으로 설법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심전심의 전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영산회상에서 석존이 꽃을 들어보이자 가섭이 미소로서 대답하여 그 자리에서 법을 전해 받았습시다. 세존께서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한다’는 바로 그 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섭이 ‘아난이여!’하고 부르고, 아난이 ‘예!’하고 대답한 그것이 바로 세존의 염화 그리고 가섭의 미소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치열한 정진 속에서 해제를 맞이하여 제대로 안목이 열린 납자라면 ‘문간에 있는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말까지도 본래 쓰러뜨리고 말고 할 찰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으로는 금을 바꿀 수 없고 물로는 물을 씻을 수 없는 도리인 까닭입니다. 만일 가섭과 아난이 서로 전한 것이 있거나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생사(生死)의 흐름에 끌려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공안이 없었다면 참으로 모두가 생사를 받느라고 요란했을 것입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고 다시 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존의 금란가사’ 공안을 걸망에 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찰간(刹竿)을 꺾어버려라’는 그 도리까지 함께 참구하고 또 참구할 일입니다.

빙소하북안(氷消河北岸)하고 (얼음은 강 북쪽 언덕에서 녹고)

화발수남지(花發樹南枝)로다. (꽃은 나무 남쪽가지에서 핀다.)

2552.1.15 동안거 해제일에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믿고 행하는 종교, 누구도 진리 깨치면 부처될 수 있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다. 불교의 ‘불(佛)’은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 ‘붓다(Buddha)’의 음사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진리에 대해 깨달은 자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누구라도 진리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고 행하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지를 보여주는 것, 불교는 바로 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교는 모르고 사는 삶에서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불설비유경>의 ‘안수정등도(岸樹井藤圖)’에는 인생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 달콤한 꿀맛에 취한 인간을 통해 오욕락(五欲樂) 즉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잊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꼬집은 대목이다.

이를 통해 욕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마음은 지혜를 흐리게 함을 일깨워 준다.

불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없애고 참된 지혜를 발현토록 한다. 또 대립과 갈등, 고통으로 얼룩진 세계를 바꿔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나 자신의 지혜와 그로 말미암는 결집없는 행위임을 깨닫게 한다.

불교는 믿음과 수행을 겸비한 종교다. 불교는 믿음과 더불어 스스로 노력하는 수행을 강조하며, 수행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불성을 깨워 나 자신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믿음과 수행을 겸비하는 불교의 참 모습이다. 수행은 진리를 깨치기 위해 탐욕에 찌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성으로 바꾸어 마침내 깨닫는 과정이다. 수행을 중시하는 불교의 특징은, 절대자로부터의 구원만을 중시하고 유일신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점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한 이유이다. 지혜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무명(無明)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밝은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다.

둘째,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한 행동과 욕망에서 벗어나 행동에 앞서 그 결과를 생각한다. 불교는 바로 이러한 세계를 열어 보여주며,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늘 자신을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 칭했다. 부처님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지혜와 평화의 길을 가르쳐주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깨닫게 한 것이다.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 -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法 그 자체”; 중생 제도위해 중생의 몸 빌려 사바세계에 온 것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어떻게 다른지, 부처님은 신인지 인간인지 등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곤 한다.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어떠한 분인지 교리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석가부족의 위대한 성자라는 의미로 고타마 싯타르타 태자가 출가해 깨달음을 얻은 뒤의 호칭이다.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도 고대 언어인 산스크리트의 붓다(Buddha)에 대한 우리말이다.

석가모니불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말은 경전 등에 나오는 부처님에 대한 정식호칭은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다른 부처님과 구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여섯 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등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왜 죽음은 피할 수 없었을까. 이 질문에 답은 “법(法)과 자신에게 의지하여 당신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부처님이 모든 중생 하나 하나가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법에 의지하라는 이 말씀만으로는 법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처님과 법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법 그 자체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중생과 같은 몸을 빌려 중생의 세계에 온 것이다. 이를 중생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본래 중생들은 본래 부처님의 법 자체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이므로 그 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과 법의 관계를 불교교리에서는 삼신설(三身設)로 설명하고 있다.

삼신이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을 말한다. 법신은 영원불변하고 유일한 법을 부처님으로 형상화 한 부처님으로 비로자나불과 대일여래가 대표적이다. 또 보신은 법신과 같은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간절한 서원에 따라 현세와 내생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으로 아미타불이 대표적이고, 화신은 중생의 몸으로 바꾸어 직접 중생의 세계로 오신 부처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란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그리고 당신은 화신의 부처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上〉 해외사찰 현황 / 전세계 137 곳에 사찰...조계종 해외포교 현주소

활동은 손꼽을 정도로 ‘미약’

한국스님이 주축이 돼 해외에 설립한 포교당이나 사찰은 한국불교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창구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외포교 역할을 개별 사찰과 스님에 일임했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세차례에 걸쳐 해외포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진단해 본다.

서구의 불교는 ‘달라이라마 불교’나 교학적인 일본불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禪)불교의 정수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는 아직 자리가 넓지 않다. 이런 점에서 동양사상과 선사상이 조화를 이룬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조계종의 오랜 과제다. 하지만 “해외포교가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중인 해외포교사업을 봐도 국제선센터 설립과 영문판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이 전부다. 해외에서 포교활동을 펴는 스님들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사찰은 137 곳. 중국,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과 캐나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한국불교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찰이 현지에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낯선 문화와 제도권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외포교를 담당하는 스님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난이다. 최근 종단의 지원을 요청한 미국 캘리포니아 전등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5년 4월에 개원한 전등사는 일요법회에 15명 안팎의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을 임대해 법회를 봤는데, 지역주민의 항의로 쫓겨나면서 어려움이 시작됐다. “사찰이 안정돼야 한국인은 물론이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개원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주지 보광스님은 “화장실도 없는 집 한 채를 어렵사리 구입해 사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세 값느라 다른 일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스님은 “불서 한권도 넉넉하지 못해 인연 있는 불자가 매달 한부씩 보내주는 불교잡지가 전부이고, <천수경> 한권이 없어서 복사해서 신도들과 나눠 읽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유일한 조계종 사찰인 반야보리사 역시 사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중국 등 몇몇 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자국민의 종교활동은 인정하지만, 타국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주금 없이 재정을 사찰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집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국가 종교국, 중국불교협회, 공안국 의사처를 거쳐야 하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현재 많은 해외사찰이 도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실행활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 곳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호주 시드니 정법사이다. 기후스님이 1992년 창건한 정법사는 10년 사이 200세대 이상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는 호주지역 대표사찰이 됐다. 정법사는 일요정기법회는 물론 매주 요가 및 참선교실을 열어 호주 내 한국인과 호주인 포교에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의 학생들에게 정법사 교민 2세와 호주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학공부도 하고 해외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해외사찰과 한국사찰과의 연계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 범등스님은 “정법사를 성공사례로 꼽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곳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포교인력은 물론 지원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도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은

선각스님이 2002 년 개원한 이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은 후원회가 결성돼 있는 점이다. 미국 불국사 후원회 모임인 ‘불국회’는 한국에서 국제포교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원력을 세워 불국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매년 회비를 건여 사찰재정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땅 한평, 건물 한 채 없는 미국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을 목말라하는 교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 하지만 사찰을 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곳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 [불교신문 2398 호/2 월 2 일자] 에서 발췌 -

해외 포교 소식:

네팔 카트만두에 선혜학교 · 어린이집 개원

신행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순례기도회’가 이번에는 네팔 카투만두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행보를 해외로 넓혔다.

지난 23 일 4 박 5 일 일정으로 네팔 성지순례에 나선 회주 선묵 혜자스님(도선사 주지)을 비롯한 300 여 회원은 방문 첫 행사로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선혜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개원식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선묵스님은 “보통 30~40 명을 다닐 수 있는 학교설립도 어려운데 108 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초대 교장인 람하리 조쉬 전 교육부장은 “이 뜻 깊은 행사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표하며 이 일이 또한 한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친교에 굳건한 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또 재학생 미사 샤코라(11 세)양은 “너무 행복하다. 큰스님이 오셔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이어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네팔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숙소인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순례단 환영행사에는 그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수상이 직접 참석, 선묵스님에게 평화훈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와병으로 3 개월 만에 외부활동을 시작했다는 코이랄라 수상은 “과거 갈등의 시기를 지나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교 순례자들의 방문은 과거 우리의 위대한 유산과 평화와 비폭력, 동정심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선묵스님은 코이랄라 수상과 사하나 프라단 외교장관, 람하리 조쉬 선혜학교 교장에게 감사패를, 촉기 남파 린포체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놓고 특별 공양 대법회를 봉행하고 많은 네팔 국민들과 우의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가질 것”이며 이 행사는 네팔정부의 배려로 봉행되는 최초 행사라고 밝혔다.

절을 찾아서 - 불자의 자세와 행동

경건하고 겸허한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생각하고 가르침 되새기려해야

불교에 입문해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인 불자라면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예전과 달라야 한다.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부끄러운 불자는 아닌지,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

불교에는 불교만의 예절과 의례가 있다. 불교예절의 근본정신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행하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불교예절을 익히고 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불자는 아침에 하루를 참되게 보내겠다는 발원으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원망이나 미움을 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 해야 한다. 경건하고 겸허한 행동과 마음가짐은 불자의 기본자세다. 사찰에서의 기본 예절을 간략히 살펴보자.

차수는 손을 어긋나게 마주 잡는다는 뜻으로, 수행도량에서 합장을 하지않고 서 있거나 걸을 때 취하는 손의 자세다. 왼손 손등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잡고 차수한 손을 하단전 부분에 자연스럽게 갖다댄다. 합장을 할때는 마주 닿은 손바닥 사이에 틈이 있거나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절은 불교의식때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스스로 낮추는 하심의 수행방법 중 하나다. 삼배를 할때는 우선 합장 반배를 한다. 그런 다음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며 무릎을 꿇고 앉는다.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발을 X 로 올려 놓는다.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하여 귀밑

높이까지 올리는데, 부처님의 발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서 내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댄다는 기분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할 때는 고두레를 하는데, 오체투지를 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모아 합장하는 것을 말한다. 고두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한번 더 머리를 조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08 배, 3000 배 등 모든 절의 맨 마지막에 올린다.

법당을 들어갈 경우에도 예절이 있다. 법당의 문은 중앙과 좌우 측면에 있는데, 중앙의 문을 어간문이라고 한다. 신도들은 좌우측의 문을 이용해야 한다. 법당에 들어서면 상단의 부처님을 향해 합장 반배를 올리고, 공양물을 올릴 경우에는 합장한 자세로 조용히 걸어야 하며, 가운데 통로인 어간으로는 다니지 않는다. 출가를 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불법을 닦는 이들을 재가불자라고 하는데, 재가불자끼리는 OO 법우님, OO 거사님, OO 보살님 등으로 부르며, 법명이 있으면 법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다.

불교방송 “마음의 향기” 12 월 5 일 방송분

연 꽃

불국사가 위치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여러 공원이나 식물원 안 연못에는 백련, 홍련, 가시연, 수련 등 여러 종류의 연꽃이 추운 겨울철 만 빼고는 일년 중 볼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연못에는 연꽃이 있어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공원 안을 산책하다 미국땅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한 두 송이도 아니고 큰 연못 가득 만발한 연꽃을 보는 그 자체 만으로도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연꽃은 꽃잎이 연밥이 되는 역삼각형의 집을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연꽃 열매가 나중에 만들어 지는 것이 라고 알고 있다가 직접 본 연꽃은 이미 열매도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상징이기도 한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청정 그 자체이기도 하고 열매와 꽃이 동시에 자리하니 우리 모두가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듯이 우리들도 설사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을 주더라도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힘차게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동하지 않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 어려움에 시달려도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어려움 그 자체를 수행으로 알고 정진해 나갑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성공적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면 지금 시련에 부딪혔더라도 겁내지 말고 정진 또 정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이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력부터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하려는 힘은 부처님 법에 의한 수양으로 단련하면 꽃과 열매가 함께 맺히는 연꽃과 같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 "108 배로 마음 다스리고 건강도 챙기세요"

‘나를 깨우는 108 배’ DVD 와 CD 로 제작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자 건강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108 배의 의미와 효과, 방법과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나를 깨우는 108 배’ (김영사 펴냄)가 책과 함께 DVD 와 CD 로 출시됐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과 ‘SBS 스페셜’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을 부쩍 끌고 있는 108 배는 하루 20 분 정도만 투자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나온 ‘나를 깨우는 108 배’는 구본일 불교 TV 대표가 108 참회문을 쓰고 고은 시인이 이를 다듬었으며, 선원수좌회 의장인 영진스님의 맑은 목소리로 녹음했다. DVD 영상은 불교 TV 가 지난 10 여 년간 촬영해 놓은 콘텐츠

가운데 골라 편집했다. 108 배 수행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한 해설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썼다.

구본일 대표는 “불교 경전에 바탕을 둔 기존 참회문과 다르게 불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불교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 새롭게 참회문을 썼다”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 수행법”이라고 소개했다.

15 년 전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8 배와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다는 박은주 김영사 사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속성장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만 정신은 갈수록 찌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하심(下心)을 체득해 정신적 여유는 물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108 배 운동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자 DVD 와 CD 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나를 깨우는 108 배'는 미국 출신 현각스님이 영어판 녹음에 참여해 올해 안에 해외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추천사를 쓴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박사는 “칼로리 소비량 측정기로 108 배의 운동효과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500kcal 이상을 소비해 달리기 못지 않은 체중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08 배는 종교적 의미 외에도 만성질환에 취약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명병의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매일 108 배를 한다는 정홍규 경산성당 주임신부는 “초종교적 의미에서 108 배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할 뿐 아니라 상대를 모시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고 했고,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스스로 낮아지려는 자세와 참회 없이는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108 배는 참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108 배 수행을 권했다.

인 등 기 도

조그마한 등불하나 보시하여
어둠의 죄업을 소멸코자 하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는 영원의 빛으로 남게 하여
가족을 지키는 수호등 되게 하시며

정법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시며
님의 앞길 밝히는 법등으로 길이 남게 하소서.

등 공양의 공덕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
지혜의 횃불 얻어
부처님 법에 머무르기 원하옵니다.

-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 안내-

매달 4 제주 토요일 저녁 9 시부터 11 시까지는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법회 방식은 참선, 요가, 경전낭독이 있습니다. 11 시에 참선법회가 끝난후에 시간이 있으신 신도님들과 간단히 경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참선 정진 법회는 일요일에 일을 하므로 일요일 정기 법회에 참석 못하시는 신도님들을 위한 법회 임과 동시에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을 위해 열리는 법회 입니다.

법회는 저녁 9 시에 시작하므로 적어도 법회 시작전 10 분전에는 도착해 주십시오. 복장은 참선하기 편한 복장으로 허리가 졸리거나 몸에 꼭 끼는 복장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참선 법회 끝날 때까지 참석하신 모든 신도님들은 “묵언”해 주십시오. 참선 법회 이후에 사찰에서 주무실 신도님들은 간단한 “세면도구” 및 “침낭”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노약자를 제외한 신도님들은 법당에서 주무셔야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에서 주무시는 신도님들은 일요일인 다음날에 가까운 공원이나 미술관 또는 동물원에 소풍을 갑니다.

토요일 참선 법회는 일요일 법회 대신한 것이므로 4 제주 일요일 정기 법회는 없습니다.

법회소식 NEWS

- 3월 13일에는 Westminster Chistian Academy-River Bend 학교 학생들이 교사 인솔하에 약 14명 정도의 학생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불국사를 방문해서 법회를 가집니다. 불교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해 좀 더 친근하고 폭넓은 이해를 돕기위해 불교 기초 교리 및 컵등 만들기 있습니다. 이 날 스님을 도와서 학생들이 컵등 만드는 것을 도와주실 불자님이 필요 합니다. 자원봉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은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 2월 3 제주 교리탐구 시간에 “108 배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법회에 DVD 영상물 시청과 더불어 몸에 무리가 주지않으면서 바른 자세로 절하는 법과 수행에 중점을 둔 법회였습니다. 만약 DVD 를 구입하고 싶으신 신도님은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 매달 4 제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법회 방식은 참선, 요가, 경전낭독이 있습니다. 법회는 저녁 9시에 시작하므로 적어도 법회 시작전 10분전에는 도착해 주십시오. 복장은 참선하기 편한 복장으로 허리가 졸리거나 몸에 꼭 끼는 복장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참선 법회 끝날 때까지 참석하신 모든 신도님들은 “묵언”해 주십시오. 토요일 참선 법회는 일요일 법회 대신한 것이므로 4 제주 일요일 정기 법회는 없습니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까지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 250불 이상 시주하신 신도님들은 Tax Credit 을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불국사에서 2월 초까지 신도님들 가정으로 서신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Donation Credit Letter 를 받지 못하신 신도님들은 불국사로 연락 바랍니다. 신속하게 조치 하였습니다.
-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불국사에서는 연등 만들기 불사 중입니다. 연등 만들기 동참 불사에 자원 봉사를 동참해 주신 많은 신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3월 상순으로 연등 제작을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생활이 많이 바빠서 시간을 내시기가 많이들 어렵겠지만 무량한 복덕을 짓는 “연등 만들기 동참 불사”에 신도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바랍니다.
- 불국사 주지 선각스님이 법회 관계로 4월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되는 일정으로 인해서 3월 다섯째주에는 4월달 인등기도 법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섯째주 “인등기도 법회”에 참석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442번 최 원, 452번 을축생 장 호, 453번 정묘생 장 정, 454번 신해생 이상옥, 455번 을축생 이슬기, 456번 정묘생 이상호, 457번 신유생 주언정, 458번 정사생 이은희, 459번 을사생 김용길, 460번 신사생 최수빈, 461번 경자생 박진원, 462번 정묘생 정지훈, 463번 기사생 정진욱, 464번 을사생 박상덕, 465번 정미생 김영희, 466번 계유생 박상근, 467번 정축생 김지연, 468번 기사생 김재수, 469번 을미생 장규석, 470번 을묘생 임철희, 471번 기해생 박순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제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